

광주여대 안산 아시안컵 양궁대회 '2관왕'

여자·혼성단체전 일본 꺾고 우승 개인전선 장민희에게 져 은메달 한국, 개인·단체·혼성 금 색깔이

광주여대 안산이 '광주 아시안컵1차양궁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안산은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강채영, 장민희와 팀을 이뤄 일본을 세트 스코어 6-0으로 꺾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자부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안산은 다음달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되는 혼성단체전에 남자부 예선 1위 김우진과 팀을 이뤄 올림픽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는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 도쿄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도 오른 안산은 장민희에게 세트스코어 4대6으로 패해 한국 양궁 첫 3관왕 달성에는 실패했다. 남자부에서는 고교교사 김제덕의 활약이 눈부셨다. 김제덕은 개인전 결승에서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을 상대로 명승부 끝에 승리를 거

두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김제덕은 김우진, 오진혁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일본을 세트스코어 5대4로 제압하며 2관왕에 올랐다. 박채순 총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도쿄올림픽 전초전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도쿄올림픽 전관왕을 향한 담금질을 마쳤다.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컴파운드 종목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휩쓸며 양궁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박채순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에 만족한다. 특히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도쿄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상의 경기력을 확인한 만큼 적당한 긴장과 멘탈 강화로 도쿄에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최대 규모 양궁대회인 아시안컵 양궁은 2015년 방콕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산이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아시안컵 양궁대회에서 과녁을 정중준하고 있다. (아시아양궁연맹 제공)

'복식 전문' 크레이치코바 프랑스오픈 단식 첫 우승



여자 테니스 '복식 전문'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33위·체코·사진)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크레이치코바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톨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총상금 3436만7215 유로·약 469억8000만원)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1시간 58분 만에 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32위·러시아)를 2-1(6-1 2-6 6-4)로 제압했다. 1995년생인 크레이치코바가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레이치코바는 복식에서는 메이저 대회 본선에 19년 출전해 2018년 프랑스오픈과 워imbledon에서 2차례 우승했으며, 복식 세계랭킹 1위도 해 본 선수다. 단식에서는 대부분 예선에서 탈락했던 크레이치코바는 단식 본선 출전 5회 만에 정상에 섰다. 카테리나 시니아코바(체코)와 조를 이뤄 출전한 여자 복식에서도 결승에 올라있는 크레이치코바는 마지막 상대인 이가 시비우테크(폴란드)-베서니 매켄센(미국) 조까지 제압하면 2000년 마리 피에르스(프랑스) 이후 21년 만에 이 대회 여자 단·복식을 석권하는 선수가 된다. 이 대회 전까지 프로 누적 상금이 약 358만 5129달러(약 40억원)였던 크레이치코바는 그 절반에 가까운 140만 유로(약 19억원)를 이번 우승 상금으로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육상 김국영·정혜림 '금빛 레이스'

전국종별선수권서 나란히 우승 김국영 100m 10초34 대회신기록 정혜림 100m허들 13초32로 1위

광주시청 김국영과 정혜림이 13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34로 1위를 차지했다. 정혜림도 여자일반부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3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다슬은 여자일반부 1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국영은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8을 찍은 뒤 결승에서 기록을 단축하며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2위는 이재하(서천군청·10초40), 3위는 김태호(국군체육부대·10초56)가 차지했다. 김국영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1회 전국시·도 대학 육상경기대회 이후 8개월여만에 필드에 나서 건재를 과시했다. 그동안 김국영은 부상과 컨디션 조절 때문에 대회 출전을 자제해왔다. 김국영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출전이다.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는 기존기록(10초05)을

통과하거나 랭킹포인트를 쌓아야 한다. 김국영의 최고기록은 한국신기록인 10초07이다. 그는 오는 25-28일 정선에서 열리는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기존기록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예선과 준결승, 결승으로 진행돼 3차례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기회가 있다. 또 기록에 따라 랭킹포인트가 주어지 이 대회 결과에 따라 도쿄행이 가능하다. 정혜림도 예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일반부 100m허들 결승에서 13초32를 기록, 조은주(포항시청·13초55), 임예름(청양군청·14초04)을 제치고 1위를 확정했다. 강다슬은 여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1초92로 2위에 올랐다. 예선은 12초17로 통과한 강다슬은 결승에서 이현희(SH서울주택도공사·11초89)에 간발의 차로 뒤졌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부상에서 복귀해 처음 레이스를 뛰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한 마지막 대회가 정선에 열리는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록과 랭킹포인트에 도전할 예정이다"며 "무엇보다 김국영과 강다슬이 부상에서 회복해 실전에 나서기 시작해 앞으로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왼쪽부터 광주시청 육상팀 강다슬, 김국영, 정혜림.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한국 가라테 사상 첫 올림픽행 박희준 최종예선서 티켓 확보



박희준(27·사진)이 한국 가라테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썼다. 13일 대한가라테연맹에 따르면 박희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남자 가타에서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했다. 가라테는 태권도에서 선수가 1대 1로 겨루는 '대련'에 해당하는 '구미타'와 '폼새'에 해당하는 '가타'로 나뉜다. '가타'는 가상의 적을 상징하고 미리 정해진 연속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힘있게 연습해 보이는지를 5명의 심판이 평가해 승자를 가린다. 박희준은 결승에서 1승 2패로 3위를 차지해 막차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연합뉴스



실업검도선수권 대회 개인전 우승, 단체전 3위에 오른 채운토전 여자검도팀. 앞줄 왼쪽부터 연지은·박다영·전지은·허윤영·김도은. (광주시 검도회 제공)

광주 대표 채운토전 검도팀 여자 개인전 1~3위 싹쓸이

실업선수권 박다영 우승·허윤영 2위·전지은 3위...단체전은 3위

채운토전 여자 검도팀이 전국대회 개인전을 싹쓸이 했다. 채운토전은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회장배 전국실업검도선수권 대회 개인전 1, 2, 3위를 차지했다. 박다영은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같은 팀 허윤영을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준결승전에서 박다영에게 2-1로 무릎을 꿇은 같은 팀 전지은은 3위에 올랐다. 채운토전은 이 대회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광주 대표 채운토전 여자 검도팀은 지난 3월 제25회 춘계전국실업검도대회 여자부단체전에서 3위에 오르는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크루엘라,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2관 크루엘라,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3관 크루엘라
- 4관 캐시트릭
-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6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9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캐시트릭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7관 씨네커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캐시트릭 파이프라인
- 8관 씨네커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플래시백 파이프라인, 실크 로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일시: 2021.07.10.(토)-11.(일) 19:30, 일 15: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377

즐거움
문화산책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6월 3일 IMAXC 대개봉